

생명을 드린 사람들

- 황종연 목사 / 2002. 11. 29 -

사람은 평생 살아가는 동안 최소한 3번의 중요한 과정을 통과하며 그것을 위하여 최선의 준비를 합니다.

첫째는 출생입니다. 태어날 아이는 그것을 위하여 아무런 준비를 할 수는 없지만 전적으로 공급을 받게 됩니다.

둘째는 결혼입니다. 또 다른 한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그동안 의지하던 터전을 떠나 동반자와 함께 자신들의 인생을 개척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셋째는 장례입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사람에게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처음부터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뜻하지 않게 병을 얻었다든지, 자신도 감당치 못할 큰 좌절을 경험할 때, 그리고 인생의 황혼을 걸어갈 때 비로소 죽음이란 주제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따라서 죽음을 위하여 준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기에 아름답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지만 꼭 해야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언장을 써 놓고 자신의 길을 떠납니다. 지금 당장 전장으로 떠나는 군인들이 그러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위하여 보냄을 받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행20:24)고 말합니다. 이미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갈2:20)고 선포합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이미 “내안에서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빌1:21)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선교 명령 이후 지금까지 부르심에 응답하여 복음을 들고 선교현장에 나갔던 모든 선교사들의 고백이 이와 같았습니다.

죽음이란 처절하고 그래서 피해가고 싶은 것이지만 우리는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욕망이 죽지 않아 형과 아비를 속이고 급기야는 광야를 살아가는 야곱, 그는 압복강가에서 죽음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이 됩니다. 바로의 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았지만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고 했던 모세는 결국 자신의 칼을 빼들고 싸움을 합니다. 그러나 철저히 낮아지는 죽음을 경험한 후에야 하나님 나라의 중보자가 됩니다.

죽은자는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은자는 말이 없지만, 살아있는 자는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나는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드릴 고백은 “주님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하는 것입니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